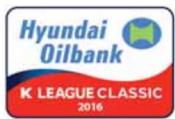


# ‘회춘’ 정조국 “아빠 첫 MVP 탔단다”

K리그 대상 시상식... 오스마르 7표차 따돌리고 영광  
‘축구하는 아빠’ 보여주고 싶어 광주 FC로 이적  
득점왕·베스트 11 겹경사 “감독·동료들 덕분”



“아빠 상 탔다”고 환하게 웃던 정조국(광주 FC)은 다시 한번 오

며 “와이프가 항상 옆에서 내 눈치도 많이 보고 도움을 주고 많은 힘을 줬는데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축구 인생의 중심점이 된 아들 태하의 이름을 빼어놓지 않았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광주로의 이적이었다. 그리고 정조국은 득점왕에 등극하며 당당한 아빠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정조국은 “나의 힘이자 원동력인 태하야 고맙다. 아까(아들이) 귀속말로 아빠 상 못 탈 것 같다고 했었는데, 아빠 상 탔다!”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조국의 무대가 끝나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MVP 발표에서 시상자로 나선 슈틸리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정조국의 이름을 호명했다.

갑작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선 정조국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K리그는 사랑입니다”며 감탄사를 내뱉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올 한해 너무 감사 드리고 아까 빼먹은 분이 있는데 조광래 감독님, 축구선수로서의 아버지인 감독님께 감사하다”며 조광래 감독의 이름을 언급한 정조국은 “이건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K리그를 대표해서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축구의 힘이고 희망인 K리그 많이 응원해주시라”고



8일 서울 흥온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광주FC 정조국이 아들 태하군과 함께 트로피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안급했다. 정조국은 감격에 벅차 잠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정조국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왔던 것 같다.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고맙고, 내가 달려야 하는 이유이자 축구 선수 정조국을 가장 좋아하는 정태하 어린이에게 좀 더 멋진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베스트 11에는 권순태(전북·광기퍼), 정운(제주)·오스마르(서울)·요니치(인천)·고광민(서울·이상 수비수)이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드 부문에서는 레오나르도·이재성·로페즈(이상 전북)·권장훈

(수원)이 베스트 11에 뽑혔다. 영플레이어상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안현범이 차지했으며, 서울의 우승을 이끈 황선홍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두산 니퍼트



삼성 최형우

## 프로야구 MVP는 누구?

두산 니퍼트·삼성 최형우 2파전  
15승 넥센 신재영 신인왕 확실시

### 14일 KBO 시상식

2016 프로야구를 대표할 최고의 선수가 14일 가려진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6 타이거뱅크 KBO 시상식을 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6시즌 MVP와 신인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개인 부문별 1위 선수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투표인단의 다양한 선호도 반영과 다양한 선수의 평가를 위해 MVP와 신인상 투표방식이 다수결에서 점수제로 변경됐다. 투표는 지난 10월 13일 KBO 리그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MVP 후보는 규정이상이나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또는 개인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에 있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신인상 후보는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 이내이면서 해외 프로야구 리그에 소속되지 않았던 선수들로 제한됐다.

MVP는 1위부터 5위까지(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 신인상은 1위부터 3위까지(1위 5점, 2위 3점, 3위 1점) 차등을 두어 투표했다. 개인별로 획득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이날 영광의 수상자가 된다.

MVP는 투·타의 ‘3관왕’ 니퍼트(두산)와 최형우(삼성)의 싸움으로 점쳐진다.

니퍼트는 올 시즌 다승(22승), 평균자책점(2.95), 승률(0.880) 부문 정상에 오르며 두산의 통합 우승을 견인했다. 22승은 2007년 다니엘 리오스가 기록한 KBO리그 외국인 한 시즌 최다승과 타이 기록이다. 꾸준함으로 대표되는 최형우는 팀의 추락 속에서도 묵묵히 중심타자로서 역할을 했다. 최형우는 타율 0.376, 타점 144개, 안타 195개로 3개 부문 타이틀을 차지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을 과시했다.

신인왕은 올 시즌 15승을 수확한 신재영(넥센)의 수상이 확실시된다.

MVP 주인공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3600만원 상당의 가이아자동차 Hybrid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KBO 신인상 및 각 부문별 수상 선수,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퓨처스리그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KBO는 이번 시상식에 야구팬 600명을 초대한다. 9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에서 선착순 300명(1인 2명)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입장권 소지자 중 당일 선착순 100명(1인 1명)에게는 팬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SPOTV와 KBO 공식 애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9회 연속 월드컵 진출 불씨 살려라

15일 우즈베크와 홈경기 앞두고 선수 집결  
2승1무1패로 조 3위...본선 직행 분수령

8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 슈틸리케 감독이 시간 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선 직행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8일 다시 집결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과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모였다. 지난달 11일 최종예선 4차전 이란 원정에서 0-1로 패한 지 28일 만이다.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해외파는 지난 주말 소속팀 경기를 끝내자마자 귀국길에 올랐다. 광태위(FC서울)와 김신욱(전북) 등 국내파도 K리그 시즌을 끝내고 합류했다. 대표팀 막내 황희찬(잠츠부르크)이 이날 뒤늦게 들어오면서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25명 전원이 참석했다.

한국은 오는 15일 우즈베크스탄을 불러들여 물리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패하면서 이란(3승 1무)과 우즈베크스탄(3승 1패)에 이어 A조 3위(2승 1무 1패)로 처졌다. 월드컵 본선에는 A.B조 2위까지 직행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조 3위는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

우즈베크스탄전은 월드컵 본선 직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조 2위 이내 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우즈베크스탄은 지난 4일 한국전에 나설 대표팀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엔 한국 축구에 익숙한 세르베르 제파로프와 알렉산데르 게인리히가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동아시아 축구에 익숙한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주의가 필요하다.

제파로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K리그 FC서울에서 뛴 대표적인 지휘관 선수다. 2013년부터는 성남FC와 울산 현대를 거치며 한국 선수들과 직접 손·발을 맞췄다. 기량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정보와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꼽힌다.

게인리히 역시 한국 프로 무대 경험이 있다. 그는 2011년 아시안컵 3.4위 결정전에서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2골을 몰아넣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아시안컵이 끝난 뒤엔 수원 삼성에 임대 선수로 입단해 데뷔 전인 FC서울전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두 선수 외에도 동아시아 축구에 익숙한 공격수 이고르 세르게예프는 베이징 귀안 소속이다. 안주르 이스마일로프는 이장수 감독이 이끄는 창춘 야타이에서 뛰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0일 우즈베크스탄과 요르단의 친선 경기 내용을 꼼꼼히 살펴 피로 전략·전술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과 역대 전적에서 9승3무1패로 앞서고 있다. 1994년 10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준결승 이후 22년 동안 패한 적이 없다.

한편 대표팀은 우즈베크스탄전에 앞서 11일에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캐나다와 친선 경기를 가진다. 슈틸리케 감독은 캐나다전을 통해 23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